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직·대담한 性

약 남용하면 '고개 숙인 남자' 됩니다

발기부전의 진단과 치료는 현대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변화를 거듭하였으며 특히 경구용 약물의 개발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발기부전의 치료는 정력제, 민간요법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고 질한 자체에 대한 개념도 부족했다.

1998년 최초로 경구용 발기유발제가 개발되면서 환자 및 의사, 모두에게 환영받게 됐다.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간편하여 환자가 쉽게 받아들이고, 성욕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발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문제에 대해 예서

무시하고 경원하던 환자들이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됐다.

40대 중반의 개인사업을 하는 김씨는 갑자기 관계도중 발기가 소실되거나 발기력이 저하되어 내원하였는데, 진찰 결과 심인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음과 과로가 쌓이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걱정과 불안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던 경우였다.

그러나 이 결과만을 보고 모든 종류의 발기부전을 경구용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몸 상태나 발기부전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심인성인

경우는 정신과적 상담이 도움이 되고 기질성인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당뇨, 고혈압 등의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남성들이 경구용 발기유발제를 치료제가 아닌 정력 증강제로 오인하거나 조루 치료제로 착각하는데 정상적인 발기가 이루어지는 남성에게서는 발기가 해소된 후 다시 발기를 이루는 간격만 짧아지게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 발기와 사정은 서로 작용기전이 달라서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 및 인식으로 인해 오·남용하면서 처방전 없이 암시장을 통해 구매, 복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80%가 가짜 약으로 효과가 없거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는 바이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아일라 외에도 국내에서 개발된 자이데나, 엠박스 등의 경구용 약물들이 나와 종류가 다양해 졌다. 발기부전 외에도 허부요증상에 대한 치료나 매일 먹는 새로운 용법이 나와 특별한 시간 제한 없이 남성들이 언제든지 성행위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발기부전 발생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적절한 약을 선택하고 적절한 용량, 용법 등을 아는 것이 본인의 성기능과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성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에서 행복약(Happy Drug)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부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후시 배우자가 몰래 약을 복용하더라도 모른척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명비노기과 원장)

함께 풀어봅시다 < 2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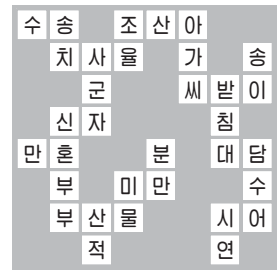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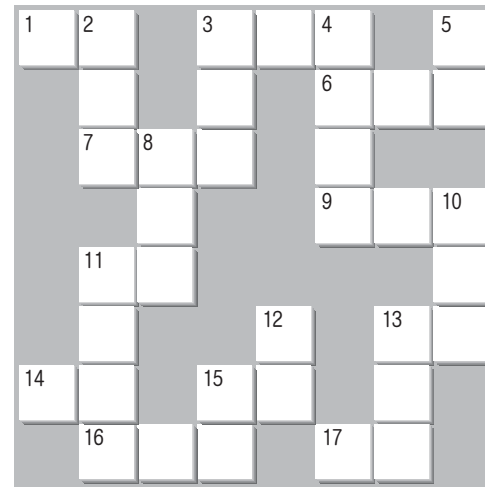
→ 가로풀이

1. 어떤 일이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 새 기획안에 대한 ~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3. 고래를 잡기 위해 특별한 설비를 갖춘 배. 6. 얼음을 만드는 기계를 이르는 말. 7. 상품 등을 파는 사람. 또는 그 기관. 불발 복제품 ~를 검거하다. → 구매자. 9. 비행기를 넣어 두거나 정비하는 건물. 중무장한 전투기들이 하나 둘 ~에서 나와 활주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1. 중세 봉건 사회에서 봉건 영주에게 예속된 농민을 이르는 말. 영주로부터 신분적 지배를 받았고, 토지에 얽매어 이전(移轉)의 자유가 없었다. 13. 맑은 술을 이르는 말. 14. 인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씀. 대표팀 감독 ~을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그를 스트라이커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15. 지위나 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향상됨. 논리

나 사고방식 등이 그 차례나 단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뛰어넘음. 논리의 ~이 심하다. 16. 변호사에게 자문이 나 변호를 받고 그 대가로 주는 수수료. 17. 병이 조금씩 나아가는 정도. 병세에 ~가 보이기 시작했다.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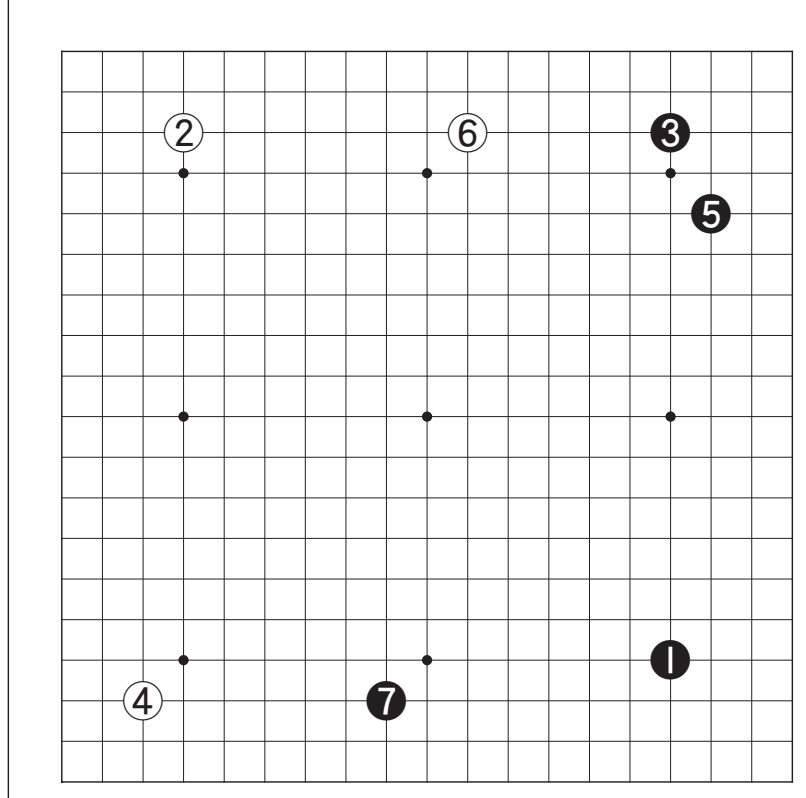
2. 흔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건네주는 자신의 성명, 주소, 직업 등을 적은 사진판 크기의 네모난 종이를 이르는 말. 3. 막이 연쇄에서 잡아먹는 쪽 동물을 이르는 말. 표범은 아프리카의 난폭한 ~이다. 4.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선수를 쳐서 공격하는 일. 5. 찬 기운. 또는 딱딱하거나 차가운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운기. 8.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10. 품삯이나 월급을



<함께 풀어봅시다 287회 정답>

- ▲지난주 정답자 김상진:광주시 북구 문흥 1동 서경옥:광주시 동구 장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예재부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 → 사용자. 11. 농사에 필요해 논밭에 대는 데 쓰는 물. → 관개용수. 12. 한방에서 쓰는 약. 풀뿌리, 열매, 나무껍질 등이 주요 약재이다. 13. 다 익어도 빛깔이 푸른 포도 종류를 이르는 말. 15. 경작지에 뿌리는 영양 물질.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고 식물의 생장을 촉진한다. → 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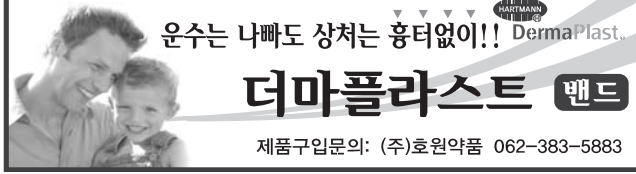
광주 기우회 최강의 라이벌 1보(1~7)
대항전 白 김희관 5단 (무석회) 黑 임상빈 6단 (광유회)
광주·전남에는 수많은 바둑동호인 모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고수들의 모임은 광유회(광주 유단자회의 약칭)와 무석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고수들의 모임은 정기적으로 대항전을 벌이며 기력을 연마하고 저변확대에 힘쓰는 등 이지역 바둑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여기 그 열전보를 소개한다. 흑을 둔 임상빈 6단은 이지역 대표기사인 심재욱 6단 선계성 6단의 뒤를 잇는 강자 중의 한명으로, 작년 전남도지사배 일반부 우승과 광주바둑협회장배 4강 오르는 등 최근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리며 지역 대표기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신창지구에서 바둑학원을 열고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있다. 백을 둔 김희관 5단 역시 임상빈 6단에게 필적하는 강자로 작년 전국체전 광주대표로 활약한 바 있으며 광주바둑협회장배 대회에서도 나란히 4강 올라 두 대국자가 최강의 라이벌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희관 5단은 현재 휴먼포스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두 기사는 모두 실리파. 백 4의 3삼이 오랜만에 보는 복고풍 포진으로 오히려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조치훈 기성전 도전
조치훈(53) 9단이 일본 기성전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다. 조치훈은 지난 7~8일 이틀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제32기 기성전 도전 7번기 3국에서 아마시타 게이오 9단에게 134수만에 흑불계패를 당했다. 종합전적은 1승2패가 됐다. 역대전적에서는 아마시타가 16승11패로 앞서고 있지만 이날 대국을 포함해 최근에만 5승5패로 박빙이다. 이번 대회 제한시간은 8시간 1분, 초읽기 10회이며 우승상금은 4천200만엔(한화 약 3억6천만위). 도전 4국은 오는 21~22일 나가사키현에서 열리며 모두 7국을 치른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2월 11일(음 1월 5일 辛巳)

- 36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다. 48년생 직업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60년생 아내와의 불화를 대화로 해결하라. 72년생 대고는 없으나 편지도 없다. 84년생 흉과 복이 다반사다. 행운의 숫자: 11, 27
37년생 실리는 최고 할 일은 많다. 49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61년생 주변이 자신의 길을 어지럽히니 중중하게 처신하라. 73년생 자신의 발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85년생 좋은 매너에 조신한 처녀가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12, 45
38년생 희망의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온다. 50년생 문서는 쥐었으나 실리 없는 문서로다. 62년생 큰 계획으로 일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4년생 재사가 불려하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종인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07, 36
39년생 체면보다는 실리가 우선이다. 51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63년생 타인의 시기가 과욕하니 조심해서 하루를 보내라. 75년생 소심한 행동이 판단을 흐리게 하니 적극적으로 사교하라. 행운의 숫자: 20, 37
40년생 화해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52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오나 현명하게 처신하라. 64년생 사소한 일로 관청에 가는 수도 보이나 자중이 최선이다. 76년생 급하면 그만이니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08, 30
41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면 할 일이 생김이 분명하다. 53년생 꾸준히 노력한 대가 나타나는 시기다. 65년생 걱정들 하지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77년생 심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싹타를 쥐고 있다. 행운의 숫자: 09, 40
42년생 과거는 꿈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라. 54년생 좋은 소식이 들려니 가족에게 전하라. 66년생 과거의 문사가 속상하니 오늘은 잊어버려라. 78년생 좋은 일은 이웃과 함께 나누면 배가 되어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21, 38
43년생 외형을 즐기고 실속위주로 추진하라. 55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 된다. 67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어라. 79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니 사랑으로 보살펴라 큰 일이 나온다. 행운의 숫자: 14, 27
44년생 신규 투자는 내일도 미루라. 56년생 자신만만 하지마라 적병이 숨어있다. 68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니 매사에 신중하라. 80년생 재사가 불려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5, 41
45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서로 이해하라. 57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된다. 69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81년생 직장과 아내사이엔 불편사가 발생하니 오늘은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20, 45
46년생 가까운 곳에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58년생 외형을 즐기고 실속위주로 추진하라. 70년생 끈기 있게 진행하면 결과가 좋으리라. 82년생 오늘은 즐겨우니 무언가 부러우라. 행운의 숫자: 17, 25
47년생 길한 일과 흥한일이 동시에 있다. 59년생 마음이 갈광질 광하니 정신을 가다듬고 차하게 살라. 71년생 외형은 즐기고 실리위주로 진행하라. 83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도 편하다. 행운의 숫자: 03, 29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093>
I think it will all work then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 같군요
A: Is everything ready for tomorrow?
B: I think so. Are you sure you can come by at nine?
A: Yeah, I'll be there.
B: All right. I think it will all work then.
A: 내일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B: 아마도. 틀림없이 9시에 오실 수 있는 거죠?
A: 그럼요. 가겠습니다.
B: 좋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 같군요.
* be ready : 준비 되다
* come by : 들리다
* work : 돌아가다, 풀리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93>
このところ、どうん譯(やく)したらいい。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A: ええええ、このところ、どうん譯(やく)したらいい。
B: 僕にわかるわけじゃない。英語(えいご)ならともかく、ペルシア語(ペルシア語)じゃ、'ちんぷんかんぷん'だよ。
A: そうよね。このみみずが這(は)ったような文字(もじ)じゃね。聞いた私が悪(わる)かったわ。
B: そういうこと。
A: 이봐 이봐,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B: 내가 알 리가 없잖아. 영어라면 모르지만 페르시아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A: 그렇지. 이 지렁이가 기어간 듯한 글자라니. 물론 내가 잘못이군.
B: 그렇지 뭐.
譯(やく)する: 번역하다
ともかく: 어쨌든
みみず: 지렁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v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70>
你几点上班?
몇 시에 출근해?
A: 姜老师! 你几点上班?
jīang lǎoshī! Nǐ jǐ diǎn shàngbān?
姜老师 几点에 나 지 드 연 상반?
B: 7 点上班。
qī diǎn shàngbān.
七 7시 7시 상반
A: 你妻子呢?
Nǐ qīzi ne?
니 지즈 니?
B: 她 8 点上班。
Tā bā diǎn shàngbān.
她 8시 8시 상반
A: 姜 老师! 몇 시에 출근하세요?
B: 7 시에 출근해.
A: 복이요?
B: 8 시에.
1. 班 [shàngbān] 출근하다
妻 [qīzi] 아내, 직

한자 이야기 <680>
名節(명절)
이름 명, 철 절
명절(名節)은 명일(名日)이라고도 하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지키며 즐기는 날이다. 일본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는 거의 달마다 명절이 있었으나, 침략기간 동안 많은 고유 민속이 훼손되면서, 지금은 설날(元日)·대보름(上元)·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 등 몇몇 명절만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四季節)의 변화가 분명하다. 명절도 이 사계절의 변화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중간 달인 음력 2·5·8·11월에 각각 하나씩 두고 있다. 봄의 한식, 여름의 단오, 가을의 추석, 겨울의 동지가 그것이며, 이를 통칭하여 사중월속절(四仲月俗節)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명절의 또 다른 특징은 달이 차올라 보름이 되었을 때를 즐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름달 명절은 추석이지만, 정월 대보름인 상원(上元), 6월 보름인 유두(流頭), 7월 보름인 백중날(中元)들도 보름달에 기원을 하던 명절들이다. 고려시대 이래 이런 명절에는 관원(官員)들도 휴가를 받아 쉬면서 농사일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